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2021 사순절 묵상집



2021 사순절 묵상집

여전히, 사십 주야

2021 사순절 묵상집은 청년대학부원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를 모아 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작년 2020년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온 사순절을 맞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묵상집은 ‘여전히, 사십주야’라는 제목으로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쉬지 않고 여전히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묵상집은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메시지를 전하며 은혜를 나누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청년들의 삶 속에서 가까이 일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교육부 등 많은 부서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원합니다.

2021년 사순절은 많은 고민과 눈물, 한숨을 잠시 멈추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2021 사순절 묵상집

여전히, 사십 주야



1부

‘예수님과 멈춰서다’

2부

‘예수님을 생각하다’

고난주간

‘비로소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23:10)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믿고,
그 아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무시한 채 쾌락에 빠진다면
결국 음부로 내려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실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해야 정금이 나오듯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2월 17일, 재의 수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저는 2020년에 청년부로 등반한 성도입니다.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등반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할 때는 지금까지 훈련받으며 어느 정도는 되었으니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나의 청년의 때를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청년부로 왔을 때,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늦는 것은 당연했고 새벽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19라는 상황을 만났고, 그로 인해 집에서 드리게 된 예배에서 처음에는 바른 자세로 드리다가 침대에 앉기도 하고 그러다 좀 더 편하게 다리를 쭉 뻗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잠이 들어 축도할 때 깨었던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껏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점점 마음이 차가워지고, 어쩔 도리가 없다며 아무도 빼앗지 않은 예배를 혼자 빼앗겼다고 합리화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은 멈춰버린 영적 자세를 통해 주님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하신 귀한 한 해였습니다. 단순히 섬김의 자리와 시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멈춰진 현실이지만, 앞으로도 연약한 나를 직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아버지 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2월 18일, 목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교회를 사랑했고, 직분의 자리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뜨거운 기도회도, 사람들과 어울려 무엇인가 만들어 냈던 시간
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 나만 남아있는 듯했고, 직분의 자리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각오한 채 교회의 자리를, 직분의 자리를 멀리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던 직분의 자리를 내려
놓으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직분을 내려놓아도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느끼던 어느 날, 리더로 섬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에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하던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
하사..”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물에 빠진 것도,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것도 도망가던 나에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섬길 리더의 직분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기에….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 또는 인생에서 사명의 자리가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사십
주야

세 번째 이야기

2월 19일, 금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가능성이 작으니 안심하러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분명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퇴근길을 지나며 생각해 보니, 반복되는 일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기도하고 답을 구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은 사라졌고,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멀어졌을 때도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 기다려 주신 감사함을 생각하며, 내일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드리는 나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주님을 놓친 적이 있나요?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네 번째 이야기

2월 20일, 토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1월이 되고 청년부에서 새 팀과 그룹을 만나면서, 몇 년 전 같은 그룹이었던 지체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니, 코로나로 일이 끊겨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아픈 데가 생겨서 병원에 다니는데 경제적으로도 좋아진 게 없고 예배도 꾸준하게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예전에도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예술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력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황을 들으니 점점 더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라고 매번 같은 말만 하는 나도 민망해졌다. 울지 말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지체에게 그래도 예배 때 보자 하고 그 주 토요일이 되길 기다렸다.

토요일이 돼서 교회에 도착했다. 사람들로 분주한 로비에서

여기저기 인사하며 돌아다니는 지체가 보였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예전에 너 손들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거 같다며 네 손은 하나님께 향한 거라고 말했던 거 생각난다.”라고 했는데, 그 지체는 “그랬었나? 옛날 일인데-.”라며 말을 끝내버렸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 흘러왔고 이어져 왔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배 앞에 멈춰 섰고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다.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에서 멈춰진 그 지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날의 설교 말씀이 새겨지길 바라본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나만 머물렀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2월 21일, 주일

말씀을 천천히 따라 써봅시다.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

이사야 53:1-9

-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섯 번째 이야기

2월 22일, 월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매일 아침 발표되는 확진자의 숫자로만 마주하던 코로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섭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 가족의 일이 되어버린 걸 알게 된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춰야 했고 멀리서 잠시 인사를 나눈 동료의 일상까지도 저로 인해 멈춰져야만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까 무서웠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수군거리게 될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멈춰야 했던 그 짧고도 길었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고, 지인들은 진심으로 중보하고 위로해 주셨으며, 슬픔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침체되지 않게 서로의 편이 되어주며 가족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도 온 세상은 날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크신 계획 아래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전히,
사십
주야

여섯 번째 이야기

2월 23일, 화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저는 호흡기 병동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죽음과 이별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보호자 중에 손녀딸 한 명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분이 명성교회 대학부를 다니는 자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반가운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며칠간 고통스럽고 힘겹게 숨을 쉬면서 힘들어하셨는데, 그날 밤 어느 한순간에 그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화면에 삐- 소리와 함께 보인 납작한 한 줄을 보면서 주변에서 있던 가족들은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고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온 가족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남성이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OOO 권사님은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슬픔만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작은 병실 공간에도 부활의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병실을 나오면서 그 한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통 없이 따뜻한 품에 안겼을 하나님의 딸 권사님의 삶에 다시 눈시울이 붉혀졌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슬픔과 죽음조차 희망으로 이어짐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도 “OOO은 지금 천국에 갔습니다!” 누군가 외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오늘이 만약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을 하나님과 어떻게 보낼까요?

2월 24일, 수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1)

지난겨울 수요일예배 시간이 다 되어 교회로 운전하여 오는 중
폭설을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갑작스러
운 폭설에 도로가 마비되어 15분, 20분, 30분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배 시간은 임박해오고 도로에 갇혀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가려고 하는데 눈 오는 시
간을 5분만 늦춰주시면 안 됐나요?’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
었지만, 시작된 원망을 멈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실
주야

느릿느릿 이동하던 중 겨우 교회 근처에 다다랐고 구 성전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불평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던 중 불쑥 제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감동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짧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마음속 원망과 불평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사순절의 기간에 이따금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무렵 폭설 때 만났던 구 성전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 안에 연약함을 은혜로 바꾸어 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예상치 못한 일로 내 삶이 멈춘 적이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지 모릅니다.

여전히,
사십
주야

여덟 번째 이야기

2월 25일, 목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안팎에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항상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겼던 분에게 오는 어려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저나 이런 분들이 더 잘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원망 섞인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단순히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란 다. 그랬다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겠지.’

그렇게 저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길 원합니다.

여전히,
사십
주야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아홉 번째 이야기

2월 26일, 금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과 계약 연장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교감 선생님께 듣게 된 통보였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만이었고, 계약 연장은 관행이었기에 예상치 못한 통보에 학교와 교감 선생님을 향한 분노보다, 이건 하나님이 시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늘 모든 관행과 예상을 엮으시는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분이었으니까요.

이 멈춤을 코로나 탓으로, 학교 탓으로, 나의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차라리 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게 하시는 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한 좁은 길인데 왜 이 길은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저는 왜 순탄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으로 마음이 닫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게 막혀 있는 순간에서 길을 여실 수 있는 분도 주님 밖에 없으시고, 모든 것이 열려 있을 때 막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뿐이지요.

초록불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은혜라고 해석하는 건 나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빨간불은 너무나도 명확한 주님의 개입과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빨간불은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내 인생에 빨간불이 있었나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해봅시다.

여
전
히,
사
십
주
야

열 번째 이야기

2월 27일, 토요일

예
수
님
과
멈
춰
서
다

공황장애로 예배가 너무 무서웠고 예배만 피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반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예배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본당에서 도망쳐 성전을 계속 돌았는데, 본당에서만이 아닌 이곳에서 함께 걷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로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본당에서 버텼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문득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어서, ‘죽어도 여기 있을래요. 여기에서 죽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내가 피할 곳이 주님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갑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기에 또 나아갑니다.

다시 또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성전 문지기 됨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시편 27:1)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 발걸음을 옮겨 봅시다.



사순절 둘째 주일

2월 28일, 주일

말씀을 천천히 따라 써봅시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12:23-30

-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열한 번째 이야기

3월 1일, 월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멈춤은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기계가 고장 나 멈추거나, 잘 되던 일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며, 때로는 그 상황에 갇혀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었을 때, 나도 그 상황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에 꽤 오랜 시간 갇혀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멈춤의 시간은, 나를 코로나라는 광야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잘못된 시선을 멈추고, 주님께 시선을 두라고 허락하신 귀중한 멈춤의 시간임을 알려주셨다. 스포츠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선수들은 팀의 승리라는 목적을 되새기며 다시 뛰 준비를 하듯이, 멈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귀중한 시간이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인해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구하고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쌓는 귀중한 시간이다.

이 멈춤의 시간을 잘 보낼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쉽 없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하프타임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사십
주야

열두 번째 이야기

3월 2일, 화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그저 지나갈 줄 알았고 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못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신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나의 아버지.

새벽이면 했던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하실 때도,
아버지가 무기력하게 누워 계실 때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넘어지셔서 머리가 깨져 갑작스레 응급실로
달려갈 때도,

언젠간 나아지겠지...
언젠간 이겨내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진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겨내지 못할까?



혼자 울다가 절망하다가 화내다가 지쳐
문득 무거운 고개를 들어보니

주님을 안 떠나게 하심에
교회로 걸어 나오게 하심에
좋은 사람들과 어머니를 붙여주심에
이겨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마음을 부어주심에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갈 줄 알았던 순간들이 모여
하나라도 더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박수진-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CCM 중]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삶에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주님의 손을 다시 잡아보세요.



열세 번째 이야기

3월 3일, 수요일

예
수
님
과
멈
춰
서
다

벌써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에 속한지 10년째 되었습니다. 리더를 하면서 남들의 눈에 ‘앞선자’로 있을 수 있었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고, 오히려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켜야 했던 때가 멈춰있는 지금, 멈추어 보니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성전이 닫히고, 제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들이 ‘나’에게 집중되었고, 주일 오후 여의도 길을 걷고,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등의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길어지자,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곳을 오가는 길에 오히려 짜증이나고, 가정에서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성전이 멀어지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겪으며 다시 깨달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만큼 제 삶에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동안 저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대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잘 보낼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쉽 없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23)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나의 마음은 지금 성전으로 향하고 있나요?

여전히,
사실
주야

열네 번째 이야기

3월 4일, 목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코로나 초기 처음으로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던 날, 정말 오랜만에 혼자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님과 나, 온전히 둘이서 대면하게 된 것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구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동안의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곧 잠이 들었지만, 주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든 건 제 착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회개의 내용보다는 저를 그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기뻐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코로나가 지배한 일상에 급속도로 적응하며 더는 그날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대면할 수 없게 되어서야 주님과 진짜 대면할 수 있게 된 그 날 기도를 통해, 원로 목사님께서 왜 이 시기를 영적인 기회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겉만 교인일 뿐, 주님 없이 멋

대로 살아가던 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제 이기적인 회개를 넘어
더 간절한 사랑으로 이제는 나 좀 보라고, 멈춤을 허락하신 것 같
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멈춤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더 늦기 전에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멈춰있었던 주님과 만남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시기는
절대 멈춤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열다섯 번째 이야기

3월 5일, 금요일

예수님과
멈춰서다

2020년 8월 말, 여름의 막바지에 하루 시간을 내어 원주 수양관에 갔습니다. ‘주님의 뜰 안에서 하계산상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한 해도 빠짐없이 여름을 온전히 원주 수양관에서의 은혜로 채웠던 터라 마음 한 켠에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해 습관인지 반가움인지 간절함인지 모를 힘에 끌려 기도실로 향했고, 기도를 하며 아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저도 몰랐던 제 마음들을 달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눈 호강을 하며, 한편으로는 원주 수양관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곳저곳 거닐던 중, 실로암 대식당 뒤편에 있는 아궁이와 그 옆에 한가득 모아둔 장작들에 눈길이 갑니다.

코로나19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오랫동안 불을 때지 않

아 보이는 아궁이와 그 옆에 고이 모아둔 장작더미, 그 앞에서 저
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작을 모아
둔 것은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제 눈에는 오히려 장작더미가 가
만히,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사용해 줄 주인과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45-46)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신 것
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기다리셔야 했
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견디며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도, 가만히 그 자리에 존재하
고 계셨던 것도 모두 오롯이 예수님이 마셔야 할 하나님께서 주
신 잔이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가만히 존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장작
더미를 보며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 장작이었는
지, 또한 오늘날도 고난을 견디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며 소
망해봅니다.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다림을 견뎌내는 장작더미이길,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집으시고 아궁이 넣으셔서 많은 사람들
을 먹이는 일에 사용해주시기를 꿈꿔봅니다.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열여섯 번째 이야기

3월 6일, 토요일

예
수
님
과
멈
춰
서
다

주말 내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저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식탁에 앉아 기다리시는데
“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하며
정작 주님과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
쿨쿨 자는...

제 오랜 신앙생활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제 곁에서 주님은 늘 안쓰럽게 지켜보시며
이불도 덮어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제힘으로 혼자서 살아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거듭나서 겨우 두 살배기 신앙이지만,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저와 동행하실 주님.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 가신 길 따라 걸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삶에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멈춰서보세요.

내가 내는 열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앞서진 않았는지

생각해봅시다.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7일, 주일

말씀을 천천히 따라 써봅시다.

향유 부은 여인

마가복음 14:3-9

- 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4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2부
예수님을
생각하다

3월 8일, 월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올해는 참 눈이 많이, 또 자주 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처음으로 많이 온 날, 오래된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대학부 시절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때 눈이 많이 올 때면, 우리는 교회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누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둘 청년들이 당연하다는 듯 교회 앞마당에 함께 모여 눈을 치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오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큰 나무판자와 빗자루를 들고 온종일 밀고 쓸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며 다 함께 즐겁게 웃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교회 오는 길에 넘어지면 안 돼!’, ‘우리 교회 앞마당은 우리가 치워야지!’라는 생각보다 그저 눈 오는 날, 앞마당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함께 모여 웃고 장난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처음으로 눈이 많이 온 날,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갔을까?, 다른 누군가가 치우고 있겠지?’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 나오는 길 저 멀리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잠시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눈이 오면 누가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했는지 서로 자랑하며 교회 앞마당 눈을 치우는 일이 당연했고 기쁨이었는데, 어느새 그 발걸음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단지 눈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약속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회 마당에 가봤습니다. 여전히 그때처럼 눈은 치워져 있고 아이들이 눈 언덕에서 놀고 있었지만, 내가, 또 나의 친구들이, 우리 청년부가 눈을 치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언젠가 이 마당에서 내가, 우리가 함께 눈을 치우며 즐거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이번 사순절, 어느 순간 멈춰 버린 나의 즐거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일이, 그 기쁨이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생각할 때 다시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며, 이제는 다 했다며 나의 헌신을 '멈춘' 적이 있나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길 다짐하는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이야기

3월 9일, 화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새벽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남아 기도를 시작하려던 때였다. 한 성도님이 옆자리에 와 앉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한참을 아이처럼 엉엉 우셨다. 그칠 줄 알았던 울음소리는 몇십 분이 지나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나는 울음소리가 성가시다고 생각했다. 막 기도를 시작하던 참이었던 내게 그 울음소리는 너무 가깝고 커서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잠시 내 기도와 생각을 멈추고, ‘주님은 지금 뭐 하세요?’라며 주님께 물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는 이 울음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었지. 사랑하니까.”라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기도에서 귀 기울이신다는 것이 하나님만의 사랑 표현방식임을 생각하게 됐는데, “네가 어떻게 내게 오든, 단 한 번도 너를 성가시다고 느낀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내게 감사요, 감동이었다.

기도해야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신다

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때로는
내 기도 소리를 멈추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
전
히,
사
십
주
야

열아홉 번째 이야기

3월 10일, 수요일

예
수
님
을
생
각
하
다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내가 감당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
질수록 걱정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 매일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공부해야 할 양이 점점 늘어날
수록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것들을 향하며
불안과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시험을 준
비하는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욕기 42장 5절을 읽고 이 말씀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
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
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
가고 있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을 글로 읽기만 했던 제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다시 따뜻해지고 평안함으
로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뵈오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내 삶에 늘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3월 11일, 목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여전히,
사실
주야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한 지 9년.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구원이 이뤄질지 의심하다가, 어느 날 막냇동생이 길에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좋았던 노래가 CCM임을 알게 되었을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나, 속으로는 놀라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다시 가족들의 구원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낙심하여 소망을 잃고, 주문을 외우듯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회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크신 엄마가 예배가 궁금하시다며 비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하실 때, 다시 가족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렇게 소망을 품다 잃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까워지는 만큼 가족들과는 거리가 생기고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 반복되며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도 여섯 바퀴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일곱 바퀴 째에 무너졌던 것처럼, 나의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한순간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주님의 사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돌처럼 굳어버린 딱딱한 가족들의 마음도 녹이시며 열리게 되어, 가족 예배를 드리며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오래도록 기도해 온 기도제목이 있나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여전히,
사실
주야

스물한 번째 이야기

3월 12일, 금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1년에 2번, 주말에 교회를 갈 수 없는 회사였어요. 출장과 예배, 일하는 동안 늘 갈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장학재단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출장 때마다 교회에 갈 수 없다는 게 괴로웠어요. 교회 가려고, 직분 지키려고 매번 회사와 싸웠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닦고 싶던 어느 팀장님은 지금은 교회 가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땐 아무 대답도 못했지만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 예배를 향한 갈증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경남 김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생각했어요. 내 예배는 끝난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깐 억울했어요. 출장간 곳이 시골이라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겨우 찾았습니다. 주일 새벽에 눈 뜨자마자 숙소를 나와 외지고 꽤 험한 길을 막 달렸습니다. 달려가 마주한 찬송 소리, 목사님과 성도 두세 분이 앉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복음이 담긴



말씀. 그날 새벽,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출장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 출장을 오시는구나. 예수님과 나는 함께 걷고, 함께 멈출 수 있는 관계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과의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좋은 주님께 나의 예배를 계속 드릴래요.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3월 13일, 토요일

예
수
님
을
생
각
하
다

마당에 도착하면 기도할 곳을 찾아봅니다.
베들레헴 성전 계단 뒤 그늘진 곳이 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수많은 나의 죄도 어려움도 감사도
쉬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이름 석 자가 부끄러운 까닭입니다.
누가 들을까 아주 작은 눈물로 읊조리면
이내 주님은 다 들으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눈물을 멈추고 마당을 돌아보면
높은 첨탑 위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그 발아래 성도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보셨을까요.
그리고 함께 흘리셨을까요.

성전 마당, 교회에는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듯,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끝까지 눈물 흘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11:35)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린 적 있나요?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사순절 넷째 주일

3월 14일, 주일

말씀을 천천히 따라 써봅시다.

감람산 기도

누가복음 22:39-46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3월 15일, 월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저에게는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 일이 닥쳐오니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힘들어지고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들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이 멈춰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가족에게는 저의 상황을 말하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 해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음이 힘드니 몸도 아프고 서러움에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께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뉴송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고, ‘하나님,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도회 때 ‘나’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보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쌓였던 미움과 분노를 내리고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들처럼 화내고 힘들어했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맞이하는 출근길은 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해졌습니다.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저를 챙기며 어려웠던 일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셨던 거 같습니다. 제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던 적이 있었나요?

3월 16일, 화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여전히,
사십
주야

고등학교 3학년, 짧은 19년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다. 자신 있게 지원한 대학교들에 전부 탈락하고 다른 학교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입시를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난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물론 가라고 하니 갔을 뿐이지만 주일성수 했는데, 비록 믿음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원망했다. 전부 끝난 것만 같아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독서실에서 몇 시간을 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십자가를 보았다. 베들레헴 성전 두 십자가 중 한 불빛이 밤하늘에 묻혔다가 천천히 다시 빛나고 있었다.

순간, ‘주님이 항상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멈춰있는 나를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외면하는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나에게 의지해 보낸 시간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렇게 깜빡거리는 십자가

를 바라보며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죄송했다.

캄캄한 밤 홀로 걸을 때는 자그마한 빛에도 큰 위안을 얻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 너무나 눈 부신 빛이 되셔서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포근한 말씀을 일러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거기 계신 거 맞냐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또 그 빛은 내 죄를 보여 나로 하여금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그 따스한 빛 아래 한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들이 완전히 드러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끄러움과 감사를 들고 오늘도 십자가로 한 걸음 나아간다.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부활하신, 나의 빛이 되신 주님을 내가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주십니다.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3월 17일, 수요일

예
수
님
을
생
각
하
다

곧 다가올 봄을 두고
서랍장을 정리합니다.
한 칸 한 칸 정리하다
양말 서랍장에 도착합니다.

하얀 양말,
유난히 바닥이 까맣게 물든
하얀 양말을 보며
그리움에 미소 짓습니다.

교회에서
특순 할 때면
하얀 양말을 준비해
모두 함께 신었던 그 날.

본당
제일 뒤편에서부터
신을 벗고 단에 올라
함께 찬양하던 그 때.

단의 든든한 바닥,
함께 찬양함의 설렘,
성도님들의 따스한 박수,
원로 목사님의 참 잘했어요.

그 모든 것이 그리워
하얀 양말로 눈물 흘치다
다시 신을 그날을 그리며
서랍장에 고이 넣어둡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소중한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내 삶의

하얀 양말, 귀한 마음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

3월 18일, 목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아 뭔가 있구나!”

삶이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심지어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주님이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음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삶은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음을
믿으며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찾고자 연습했습니다.

그 광대하신 계획을 다 알 순 없지만 [무언가]가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도 주 안에서 무언가가 있음을,
주님이 이루실 큰 계획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로 정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셨구나! 주님이 뭘 이루실지
기대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뜻을 구하고 있나요?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

3월 19일, 금요일

예
수
님
을
생
각
하
다

중학생이던 저는 예배를 마치면 교회 식당으로 뛰어가 우리
가족이 식사할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국수는 비결이 뭘
지, 질리지도 않고 어찌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먹던 밥이 그때는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국수만 먹지 말고 밥도 먹으라며
먹여주시는 할아버지, 은혜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할머니.
지금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여 날아갈까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식당은 따뜻하고 정겨운 성도들의 이야기가
그리울지도 모릅니다. 불 꺼진 추운 곳에서 예전의 온기를 기다
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서서 먹던 소머리국밥,
새벽예배를 드리고 받은 컵라면. 그곳에서의 대화와 웃음이 주
님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저는 우리가 잠깐 멈춰 있는 거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불을 밝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성도와 성전, 교회 식당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의 이야기를 쓰게 하신 주님, 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사실
주야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그저 당연하게 누렸던 은혜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3월 20일, 토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여전히,
사십
주야

비가 검은 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단에도 물이 가득합니다. 청년들의 시선은 강단의 빛을 향했고, 우비를 눌러 쓴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실의 기억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가득히 적셨던 비, 청년들의 뜨거운 가슴, 그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항상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 않냐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해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보라고, 심지어 거짓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지만 내 인생도 그런 걸 어떡합니까. 왜 항상 멈춤만 있는 건지, 후퇴만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무슨 놈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건지, 심지어 그게 고상한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보는 건지.

감사하게도 새해를 맞아 교회가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길을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오랜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집중하게 되더군요. 반가웠나 봅니다.

항상 그러셨듯,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내 마음에도, 그때의 비가 내렸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물이 고팠는지 몰랐습니다. 그 물이 넘쳐 내 눈앞까지 가리는 걸 보니, 분명 비가 거세게 왔습니다. 마음의 밑바닥부터 차오른 물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던 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나의 작은 한구석에,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오가며, 겨우 일하고 또 일합니다. 사람들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어두운 곳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하 사이사이를, 마치 작은 새처럼,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오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되어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되새겨보는 하루되시길 축복합니다.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사순절 다섯째 주일

3월 21일, 주일

말씀을 천천히 따라 써봅시다.

십자가 못박히시다

마태복음 27:37-44

-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
쓴 죄패를 붙였더라
.....
-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
-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
예수를 모욕하여
.....
-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
내려오라 하며
.....

-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3월 22일, 월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우산이 소용없을 만큼 큰 장맛비가 내리던 퇴근길이었습니다. ‘아... 이 비를 맞고 걸어가면 오늘은 세 시간 수업을 앉아서 들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수업을 들으러 가야 했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동료들 사이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비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쳤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0미터쯤 걸었을 까요. 몰아치던 비와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고, 신선한 바람과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칠 것 같지 않던 비와 바람도 반드시 멈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의 폭풍도 반드시 멈추고 좋은 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내 삶에도 그칠 것 같지 않던 비가 내린 적이 있나요?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봅시다.



서른 번째 이야기

3월 23일, 화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등곳길과 하곳길에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쉬어가곤 했다.
여름에 구 성전 회색 돌바닥이 주는 시원함과
지하층에 있던 남자 기도실의 작은 동굴 같은 모습,
지하실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좋았다.
교회를 깨끗이 닦고 청소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청소하고, 눈이 많이 오는 날엔 사람들과 함께 삽자루를 쥐고
눈을 치우며 새벽 예배 길을 만들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왔던 어느 날은
예루살렘관(지금의 샬롬관) 지하가 잠겨
바가지로 물을 퍼낸 적도 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걱정되고,
아무 이유 없이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이
학교로, 회사로, 사람들에게로 향하며 점점 바뀌어 갔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최단 경로로 집에 가는 방법을 찾았고

비가 오면 어제 세차했던 게 생각났고,
눈이 오면 출근 걱정을 하게 됐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했지만,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코로나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성전의 소중함과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알게 됐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성전 마당을 밟으려고 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다시 들어간 예배당에서는
단지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많이 났다.
‘완전한 정지’가 아닌 ‘잠시 멈춤’으로
성전의 귀함과 교회의 소중함을 더 깊게 새겨주셨다.
다시 드리는 나의 평생 고백은 [여전히, 성전 사랑]이다.

✧
✧
✧
✧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이후 성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요?

여
전
히,
사
십
주
야

서른한 번째 이야기

3월 24일, 수요일

예
수
님
을
생
각
하
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24)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스스로
믿음이 좋은 편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그 믿음
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
을 가져가 버리신 것만 같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만 같
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교
만했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믿음을 치셨구나. 이 상태로 내가
죽는다면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그때부터 영혼의 생사를 놓고 절박하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수개월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라도 이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 밖에 없기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원주 수양관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중에 어두운 저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말로 정확히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의심의 구름이 조금씩 걷히
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믿음도 하나님
이 붙잡아 주셔야 지킬 수 있구나. 그동안 내가 믿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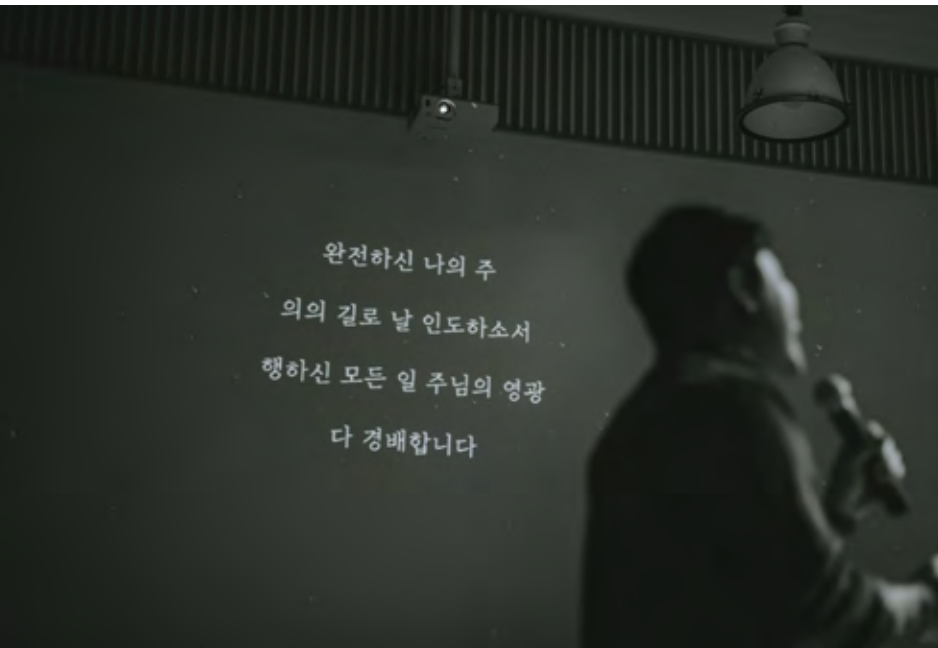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멈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루를 보내봅시다.

3월 25일, 목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여전히,
사십
주야

‘불합격하셨습니다’

또 불합격 통보였습니다. 1년을 꼬박 준비했던 시험에서의 불합격, 기대를 하고 봤던 최종 면접에서의 불합격. ‘합격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하며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왜 멈추라고 하시는지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느 겨울보다 춥게 느껴지던 그해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으로 갔던 수련회 첫날, 하나님은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너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럼 꼭 그 직업이 아니어도 되니?’

어릴 적부터 너무나 꿈꿔왔던 직업이기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붙잡고 한참을 씨름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백프로 내려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다음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합격 전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내 꿈과 계획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아니 그보다 먼저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 ‘멈춤’의 시간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 세상과 나를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때라는 것을, 그리고 내 앞의 벽은 ‘막힌 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멈춰있던 순간에도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닿아 있었나요?

여전히,
사실
주야

서른세 번째 이야기

3월 26일, 금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코로나 이전에 제가 생각한 좋은 믿음의 모습은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주어질 때 더 빨리, 더 앞서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페이스를 조절하게 되는 순간도 만났었지만, 지금처럼 모두의 시간과 삶이 느려지고 멈춰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함께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저 또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채비를 꾸려 열심을 품고 달려 나가려는 부푼 꿈과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더욱 두렵고 막막 해져버린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제 안에 있는



조바심과 조급함,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생각하면 ‘아직’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실에서 의 이론수업이 아니라 삶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체험학습이었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었던 교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배움이 더딘 저는 지금도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는 중입니다. 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이 멈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멈춤의 상황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며 알아가는 행복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3월 27일, 토요일

예수님을
생각하다



여전히,
사십
주야

바쁜 삶의 순간에도 아주 문득, 이 크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나만, 우리 공동체만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 소외된 이웃을 향한 막연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나름 대로 후원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돌아보며 이것이 최선이라는 변명으로 다시 일상으로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모두에게 터진 이 거대한 슬픔의 시간 가운데 청년대학부가 시작한 노숙자 사역이 우연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셔서 차가운 손을 함께 녹이고 계셨습니다. 너무 늦게 찾은 것 같아서, 그저 나의 슬픔에만 갇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참 죄송했습니다. 낡은 슬리퍼 안에 딱딱히 굳은 차가운 발가락보다도 마음이 더 춥다던 그들을 예수님은 안고 계셨습니다. 수줍은 인사에 생기가 돌던 얼굴 속에, 그리고 오랫동안 식어있던 그 손을 맞잡고 기도했을 때, 함께 하시던 예수님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슬픔과 멈춤의 시간 가운데, 여전히 나와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나와 우리를 먼저 찾아내 함께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멈춤이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더 큰 고통과 소외감을 주지 않았을까 마음이 먹먹하지만, 항상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내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나와 지금 함께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성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일은 뒷전인 저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나의 시선을 내 이웃에게 맞춰보는 하루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십
주야

사순절 여섯째 주일

3월 28일, 종려주일

말씀을 천천히 따라 써봅시다.

예루살렘 입성

마가복음 11:1-10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벧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 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 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난주간

비
로
소
예
수
님
이
보
이
다

고난주간 첫째 날

3월 29일, 월요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 마 21:13 /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성전을 청소하시다

예루살렘 입성 후 첫째 날,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3월 30일, 화요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 마 21:42-43 /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논쟁을 하시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두렵고, 시기하여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논쟁하였습니다. 이들이 내려놓지 못한 ‘기득권’처럼, 내 안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기득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봅시다.

3월 31일, 수요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 요 12:3 /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다

마리아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값진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냈습니다. 마리아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내 삶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봅시다.

고난주간 넷째 날

4월 1일, 목요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 요 13:13-15 /

여
전
히
,
사
십
주
야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선생’의 자리에서 역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나의 자리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던 다른 이들의 섬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겨봅시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4월 2일, 금요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롬 6:6 /



십자가에 달리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모습들을 못 박아 봅시다.



고난주간 여섯째 날

4월 3일, 토요일

토요일은
믿음의노라를
불러야 합니다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은 독특한 상징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삶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성취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믿음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의심과 고난의 날이 아니라 믿음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심 속에 있었던 토요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믿음을 찾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다리는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하나 담임목사 / 2019. 4. 20. 말씀 중]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_____ 믿습시다.

_____ 믿습시다.

_____ 믿습시다.



4월 4일, 부활 주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빛도 없고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도 없는 어둠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두의 마음이 무덤 속 어둠에 있었습
니다. 어둠의 깊이가 가장 깊어진 새벽녘, 예수님은 무덤을 나오
셨습니다. 어둠에서 나오셨고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빛도 없고, 생명의 기운도 없는 무덤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덮으
려 할 때, 코로나의 어둠이 우리를 가두려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어두움을 내어쫓는 소망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을 내어쫓읍시다.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은 주님과 함께 옮기는 걸음 걸음마다 사라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김으로 각자의 어둠을 몰아낼 뿐 아니라, 주변의 어둠을 걷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김하나 담임목사

